

관광지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수안보온천의 활성화 방안

이 영 희*

The Device to Activate Suanbo Hot Spring Followed by Tourism Destination Area Life Cycle

Young-Hee Lee*

요약 : 본 연구는 관광경기 침체현상으로 지역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수안보온천의 현재의 단계를 관광지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근거하여 진단하고 이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안보온천은 관광지 라이프사이클에 따르면 1998년 이래로 관광시장의 축소, 편의시설의 소멸, 주말 및 당일 체류관광객의 증가 등의 관광지 쇠퇴단계의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쇠퇴단계에 이른 수안보온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광 편의시설물의 노후화와 자본 부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기존 시설물을 일부만 변경하여 노년층의 영구거주지로 분양하는 것이다. 둘째는 방치된 야외무대장을 주말 상설놀이마당으로 활용하고, 셋째는 수안보온천 관광호텔 자리에 있는 냉천(冷泉)을 약수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는 것이다.

주요어 : 관광지 라이프사이클, 제품수명주기, 영구거주지, 레크레이션 업무지구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urrent situation of Suanbo hot spring which is having a hard time for the reasons of the economic slump of tourism in this area. There are some suggestions to boost Suanbo's tourist business by using the tourism destination area life cycle. According to Butler's model, Suanbo hot spring has had some features since 1998; minimization of the tourist market place, increment of weekend or day trips, and extinction of tourist facilities. The major problems are the outworn tourist facilities and a lack of funds. Seeing the decline stage indicators of Butler's model, we can easily found the method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the tourist facilities are partially to be replaced by residential area for the retiree and the elderly. Second, the open-air stage should be utilized for weekend Norimadang permanently. Third, cool springs in Suanbo Tourism hotel should be switched to the mineral water.

Key Words : tourism destination area life cycle, product life cycle, permanent settlement, Recreation Business Districts(RBD)

1. 서론

1) 연구목적

관광지는 관광객, 관광자원, 관광산업 등의 요소들이 공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릇으로서 그릇 안에 담긴 내용물이 그릇의 형태에 따라 변화하듯이 관광시장의 수요, 경쟁관광지의 등장, 교통체계, 정책 등에 의해 변화한다.

Christaller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예술가의 장소 모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논한 바 있다."

"...화가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비밀상적인 장

소를 찾아 떠난다. 이러한 장소는 단계적으로 예술가들의 선호지역으로 발달하여 시인, 영화관계자, 식도락가 등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이러한 장소는 점차 예술가들에 의해 유명해지면서 기업가들의 투자대상이 되고, 어부의 작은 집과 오두막은 기숙사와 호텔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곳이 신문을 통해 광고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결국엔 여행사의 패키지상품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예술가들은 애초에 선호했던 장소가 변화한 관광지로 변하게 되면 또 다른 장소를 모색하기 위해 먼길을 떠난다..."

이러한 관광지의 변화과정은 버틀러(R. W.

* 동국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Graduate Student in Doctoral Program, Department of Geography, Dongguk University)

Butler, 1980), 크롭프톤과 헨셀링(J. L. Crompton and D. M. Hensarling, 1987), 쿠퍼(Chris Cooper, 1994), 덕시(G. V. Doxey, 1976)²¹, 플러그(S. C. Plog, 1974), 메섹(Miossec, 1976)³¹, 폴리와 쿡(R. Polli and V. Cook, 1969)⁴¹에 의해 연구되었다. 이들 중에서 버틀러, 크롭프톤과 헨셀링, 쿠퍼는 상품이 개발·출시되어 매출액이 점차 증가하다가 언젠가는 소멸된다는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이론을 관광지의 발달단계를 특징짓는 한 방법으로 응용하여 관광지 라이프사이클(tourist area life cycle)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덕시는 관광객에 대한 관광지여주민의 반응이 관광지 발달단계에 따라 행복단계(euphoria level), 냉담단계(apathy level), 자극단계(irritation level), 적대감단계(antagonism level) 순서로 나타나는 모델을 만들었다. 플러그는 관광객의 성향이 관광지의 발달단계에 따라 모험적인(allocentric) 형, 중간(mid-centrics) 형, 보수적인(psychocentric) 형으로 변화한다는 연구를 하였다. 이 밖에 메섹은 진화의 개념을 사용하여 관광지 라이프사이클을 연구하였으며, 폴리와 쿡은 관광객 수의 변화비율⁵⁾에 근거해서 관광지 라이프사이클을 구분하였다.

관광지 라이프사이클은 각 단계별로 관광지의 기본적인 관광자원, 관광지여주민, 관광객, 관광산업에 대해 각각 다른 효과를 가지며, 관광지에 대한 예측적인 매카니즘을 제공한다. 따라서 관광지 라이프사이클 연구는 관광정책입안자나 관광사업체 경영자에게 매우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의 발달형태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고 관광지의 변화를 계량화하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지리학 분야에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할 만하다. 특히 방법론이 미흡한 국내 관광지리학 분야⁶⁾에서 관광지 라이프사이클 연구는 관광지를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관광지를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생성·변화·발전하는 생명체로 인식하는 이론적인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광지에 대한 예측적인 매카니즘을 제공하는 관광지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의거해서 관광경기 침체현상으로 지역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수안보온천의 현 단계를 진단하고, 수안보온천의 발전을 막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모

색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자료 및 방법

수안보온천의 관광지 라이프사이클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 버틀러, 크롭프톤과 헨셀링, 쿠퍼, 덕시, 플러그, 메섹, 폴리와 쿡 모델을 수안보온천에 적용한 후 이 중에서 가장 적용도가 높은 버틀러 모델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수안보온천 라이프사이클의 각 단계는 버틀러모델의 관광지 발달단계별 지표로 수안보온천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로는 충청북도청, 충주시청, 상모면사무소의 공식적인 통계자료(1963~1999년)와 비공식적인 내부자료, 수안보 관광협의회 자료, 심층 면담자료, 각종 문헌자료, 설문지 문항분석자료, 고사리면(古沙里面) 온정동동규절목(溫井洞洞規節目)⁷⁾, 온정동금송절목(溫井洞禁松節目)⁸⁾, 수안보온천의 수치지도(digital map) 등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관광객 수와 관련된 자료는 선행 연구자의 연구결과물과 수안보 관광안내소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수안보온천의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는 관광객, 관광숙박업소, 관광음식점업, 관광기념품판매점, 지역주민, 민박집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여행객의 개별적인 속성>, <여행형태>, <관광지 선호요인>, <수안보온천이 노후생활을 보낼 장소로서 적당한가>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관광객에 대한 설문조사는 관광객 전체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1999년 2월부터 5월까지 수안보 시외버스터미널, 관광식당, 콘도, 1급 호텔, 일반 호텔, 장급 여관, 온천 목욕탕 등지에서 무작위추출(random sampling)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관광객에 대한 설문지는 총 배포지 250매 중에서 179매(72%)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179매를 모두 분석 대상에 이용하였다.

둘째, 관광숙박업소, 관광음식점업, 관광기념품판매점 등의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설립 년도>, <종업원의 출신지역>, <시설개선 및 규모확장을 한 시기>, <소유주 변동사항>, <용도전환여부>, <수용능력>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문조사는 1999년 2월부터 5월까지 개별 방문 및 전화 인터뷰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지역주민의 개별적인 속성>, <관광객과의 접촉여부>, <관광객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스키장 및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변화>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설문조사는 1999년 2월 20일 충주시 상모면 윗놀이 대회에 참석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3) 관광지 라이프사이클의 개념적 근거

관광지의 변화는 상품이 개발·출시되어 언젠가는 시장에서 소멸하는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와 비슷하다. 제품수명주기는 모든 제품이 다 갖고 있으며 공통적인 몇 가지의 특성을 보인다. 첫째, 제품수명주기는 대체로 S자 형태(그림 1)를 취하며 수요수준을 근거로 하여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분된다. 물론 일부 신제품들이 도입기에서 실패하여 도중하차하거나 성장기에서 곧바로 쇠퇴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반드시 네 단계를 모두 거쳐가는 것은 아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전체 수명주기가 몇 주일로부터 수십 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간을 가지며, 수명주기 상의 각 단계가 지속되는 기간도 매우 다르다. 둘째, 이익은 도입기에 적자였다가 성장후기에서 극대점에 이르며, 성숙기를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한다. 셋째, 모든 제품은 결국 쇠퇴를 맞이하기 때문에 신제품의 개발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도록 해야한다. 넷째, 성숙기는 대체로 수명주기 상에서 긴 기간을 차지하는데, 오늘날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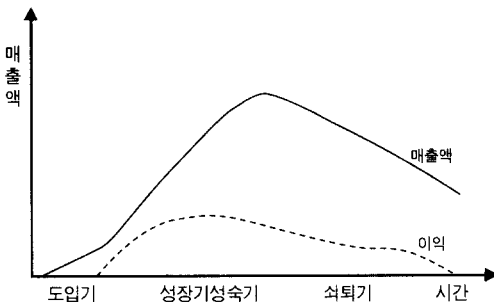


그림 1.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

출처: 유동근, 1997, 통합마케팅, 미래원,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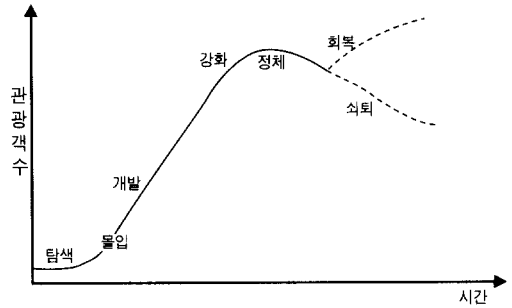


그림 2. 버틀러 모델

출처: Butler, 1980.

성공을 거두고 우리에게 친숙한 제품들은 대체로 이 단계에 속해 있다.⁹⁾

이러한 제품수명주기는 매우 단순한 개념이지만 관광지의 성장과 발전전망을 검토하기 위한 개념적인 근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관광지 라이프사이클 연구의 밑거름이 되었다.

2. 수안보온천 라이프사이클의 단계결정

버틀러는 관광지의 변화과정이 상품이 출시되어 매출액이 점차 증가하다가 언젠가는 소멸된다는 제품수명주기 개념에 기초하여 관광지의 변화 단계를 탐색(exploration)·몰입(involverment)·개발(development)·강화(consolidation)·정체(stagnation)·회복(rejuvenation) 또는 쇠퇴(decline) 단계로 구분하고 이것을 S자형으로 표현하였다(그림 2). 이러한 버틀러모델의 각 단계별 지표를 수안보온천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 1).

1) 탐색단계의 지표와 수안보온천의 특성 비교

버틀러가 그의 모델에서 탐색단계에 제시한 지표(표 1)를 수안보온천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다>는 지표는 수안보온천에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안보온천은 삼국시대부터 남북의 연결통로¹⁰⁾에 위치하여 도로가 발달하였고, 안부역(安富驛)¹¹⁾, 온정

표 1. 버틀러모델과 수안보온천의 특성 비교

단계	버틀러모델의 단계별 지표	수안보
탐색 단계	1. 소수의 모험적인(alloentric) 관광객 2. 관광객들은 관광지를 오랫동안 매력적인 곳으로 기억하지 못함 3. 불규칙한 방문형태 4.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음 5. 방문객과 지역거주자와의 접촉빈도가 높음 6. 지역의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은 관광의 영향을 받지 않음 7. 관광객의 출입은 지역경제에 의미가 없음	○ ○ ○ × ○ × ○
몰입 단계	1. 방문객의 숫자가 증가하고 방문횟수가 규칙적임 2. 방문객을 위한 일차적 편의시설이 제공됨 3. 관광객과 지역민의 접촉은 빈번함 4. 관광지에 대한 광고가 나감 5. 관광객의 계절성이 두드러짐 6. 관광객의 여행이 조직화됨 7. 지방정부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도로건설에 대한 압력을 받기 시작함	○ ○ ○ ○ ○ ○ ○
개발 단계	1. 광고에 의해 관광시장지역이 형성 2. 지역의 물리적 환경변화가 현저 3. 개발에 대한 통제와 지방정부의 관여도가 줄어들음 4. 자연적이고 문화적인 관광자원이 개발되고 상업화됨 5. 자연 및 문화적인 자원은 인공편의시설로 대체 6. 관광자원의 개발과 지역의 변화는 지역사람 모두에게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님 7. 관광절정시기에 관광객수는 지역의 인구나 비슷하거나 초과 8. 외부지역에서 노동력을 충원받음 9. 관광산업의 보조시설(예:세탁소)이 필요 10. 숙박부분에서 기존의 지방적 시설이 더욱 크고 화려한 최신 시설로 대체	○ ○ × ○ ○ ○ ○ ○ ○ ○
강화 단계	1. 지역의 주요 경제가 관광과 밀접히 관련됨 2. 총 관광객의 숫자는 증가하지만 방문객의 증가 비율은 낮게 나타남 3.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넓은 지역으로 광고를 하게 됨 4. 관광산업의 프랜차이즈와 체인영업이 극소수이지만 나타남 5. 관광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지역민들은 관광객의 형태와 관광객 편의시설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함 6. 레크레이션 업무지구(Recreation Business Districts: RBD)가 형성	○ ○ ○ ○ ○ ○
정체 단계	1. 관광객 수가 최고에 이르게 됨 2. 수용능력을 초과하기 때문에 사회·경제·환경적인 문제가 발생 3. 관광지의 이미지는 좋지만 매력적인 편은 못됨 4. 지역의 고유한 관광자원이 인공적인 환경으로 변함 5. 관광지 주변지역에 새로운 관광현상이 나타남 6. 관광산업의 소유권이 자주 바뀜 7. 보수적인 성향의 조직화된 단체관광객이 많음	○ ○ ○ ○ ○ ○ ○
쇠퇴 단계	1. 다른 관광지와 경쟁을 할 수가 없음 2. 시장은 공간적으로나 숫적으로 침체국면을 보임 3. 관광객에게는 더 이상 매력이 없음 4.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주말 및 당일 관광객이 많음 5. 관광객 편의시설이 다른 시설물로 대체 6. 보다 많은 편의시설이 소멸 7. 다른 지역 거주자 및 사업가가 아주 낮은 시장가격으로 관광객 편의시설을 매입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관여가 많음 8. 관광객 편의시설의 용도전환이 매우 쉽게 일어남 9. 호텔은 콘도미니엄, 요양소, 은퇴자의 거주지, 편리한 아파트로 쉽게 용도전환이 일어남 10. 노년층은 은퇴후 영구거주지로 관광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11. 관광지는 관광기능의 상실로 슬럼지구로 변하는 경우도 있음 12. 수용능력의 초과현상이 나타남	× ○ × ○ ○ ○ × ○ △ △ △ ×
회복 단계	1. 카지노와 같은 매력적인 관광자원 투여 2. 미개발 자원을 개발하여 이익을 얻음 3. 새로운 시장은 모험적인 성향의 관광객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보다 특별한데 관심이 있거나 활동성이 강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임	× × ×

주: ○-수안보온천에서 나타나는 지표 ×-수안보온천에 나타나지 않는 지표 △-진행중

원(溫井院)¹²⁾ 등의 시설이 일찌기 형성·발달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의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은 관광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지표도 수안보온천에 적용되지 않는다. 조선시대 수안보온천에는 온천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듦에 따라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회문제와 산림훼손 등의 환경문제가 심각하였다. 이에 수안보온천이 행정적으로 속한 고사리면 온정동(溫井洞) 관에서는 수안보온천의 질서유지를 위해 온정동동규절목(溫井洞洞規節目)과 금송절목(禁松節目)을 제정하였다. 온정동동규절목은 1832년에 관에서 미풍양속을 바로 잡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남녀문제, 술주정꾼, 가족 및 친척 간의 불화, 동네사람들과의 불화, 소나무 벌목 등 총 8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송절목(禁松節目)은 온천에 모인 사람들에 의해 수안보온천 일대의 소나무가 크게 훼손되자 1819년에 고사리면 온정동 관에서 제정한 법규이다.

셋째, <모험적이고 탐험가 성향이 강한 관광객이 찾는다>는 지표는 929년부터 18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수안보온천에 적용된다. 기록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수안보온천을 다녀간 사람은 고려 태조¹³⁾, 조선 숙종¹⁴⁾, 권람¹⁵⁾, 권상하¹⁶⁾, 통신사 일행¹⁷⁾, 유생¹⁸⁾, 관기¹⁹⁾ 등이다. 이들은 Plog(1973)가 모험적인 성향의 관광객을 규정하기 위해 설정한 지표²⁰⁾ 중에서 활동수준이 높다는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수안보온천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관광객은 불규칙한 방문형태를 보인다>는 지표는 929년부터 1907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수안보온천에 적용된다. 여기서 929년은 고려 태조가 수안보온천에 다녀간 때이고 1907년은 일본인에 의해 온천이 개발되기 전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에 수안보온천은 병이 났을 때²¹⁾, 공문서 전달 시, 과거시험 볼 때²²⁾ 주로 이용되었다.

다섯째, <관광객의 출입은 지역경제에 의미가 없다>는 지표는 929년부터 1818년²³⁾까지의 기간 동안에 수안보온천에 적용된다. 수안보온천의 경우가 기간 동안에 공부여행자를 위해 편의시설인 온정원(溫井院)과 안부역(安富驛)을 정부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방문객의 출입은 수안보온천 지역경제에 의미가 없었다.

이상에서 버틀러모델의 탐색단계의 지표를 수

안보온천에 적용해 본 결과, <방문객을 위한 편의 시설이 없다>와 <지역의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은 관광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지표는 수안보온천에 나타나지 않고, <모험적이고 탐험가 성향이 강한 관광객>, <불규칙한 방문형태>, <방문객과 지역거주자와의 접촉빈도가 높다>, <관광객의 출입은 지역경제에 의미가 없다> 등의 지표는 수안보온천에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버틀러모델의 탐색단계지표에 근거했을 때 수안보온천의 탐색단계는 고려 태조가 수안보온천에 다녀간 929년부터 1907년까지의 기간 동안 나타난다.

2) 몰입단계의 지표와 수안보온천의 특성 비교

버틀러가 그의 모델에서 관광지의 몰입단계에 제시한 지표를 수안보온천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방문객의 숫자가 증가하고 방문횟수가 규칙적임에 따라 몇몇 지역거주자는 방문객을 위한 일차적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시작한다>는 지표는 수안보온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수안보온천의 경우 19세기초 병자가 구름처럼 모여들었으며,²⁴⁾ 1924년도에는 수안보온천 이용객수가 약 15,000명 정도였고²⁵⁾, 1927년에 약 38,657명이었다.²⁶⁾ 그리고 온천 이용객의 요구에 의해 주막, 초가형태의 욕조건물, 이엽(二葉)여관과 내천(內川)여관 등의 일차적 편의시설이 형성되었다.

둘째, <관광객과 관광지 주민의 접촉이 빈번하다>는 지표는 온정동동규절목(溫井洞洞規節目)이 제정된 1832년부터 일본인에 의해 온천공이 개발되기 전인 1928년까지 수안보온천에서 관찰된다. 온정동동규절목에 의하면 수안보온천에 아침에 모였다가 저녁에 흩어지는 무리가 많다고 하였다.²⁷⁾ 이러한 기록은 많은 사람들이 수안보온천에 모였음을 증명해 준다. 당시 수안보온천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주막과 같은 사설숙소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민가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온천이용객과 수안보온천 지역주민간에 접촉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동사일기(東槎日記)²⁸⁾에 의하면, 수안보온천에 통신사 일행이 500명이나 되어서 숙식을 준비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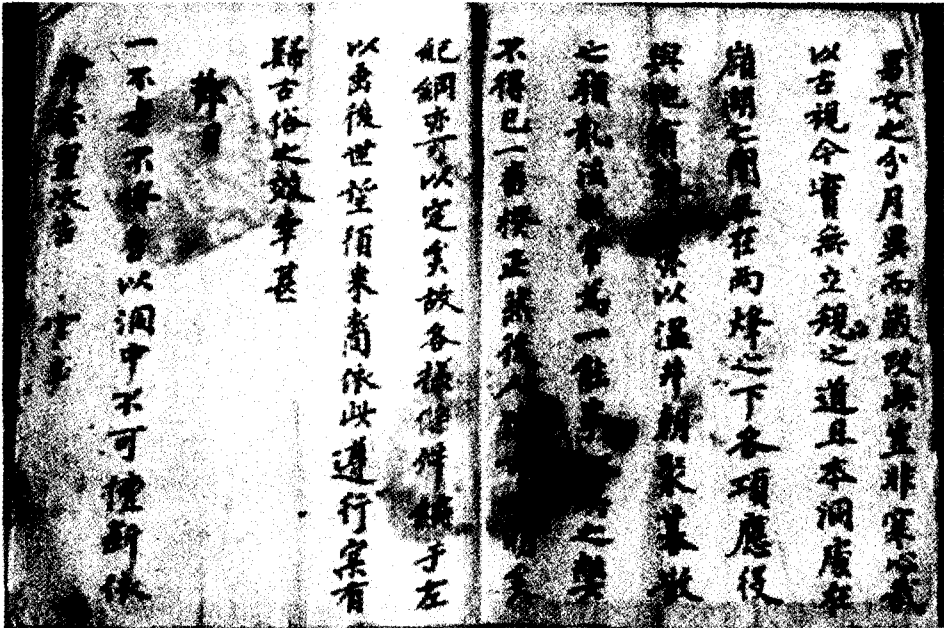


사진 1. 온정동동규절목(溫井洞洞規節目)

출처: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조일환씨 소장

해 지방현감은 물론 충청감사까지 수안보온천에 와서 시중들었다고 한다. 당시 수안보온천 인근의 안부역(安富驛)은 수십 명 정도 밖에 수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신일행은 수안보온천 인근 민가에서 거거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셋째, <관광지에 대한 광고가 나간다>라는 지표는 17세기부터 1928년까지 수안보온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세종실록²⁹⁾에 의하면 “도내(道內)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도를 옮겨 그리게 하여 사관(使官)에 간직하고, 또한 변장(邊將)들의 처소에도 나누어 보내라” 하였다. 이점으로 미루어 보아 온정(溫井) 표시가 된 <팔도총도>, <조선전도>, <연풍현지도>, <청구도>는 전략적으로 요새지인 이 지역 관방의 장수와 관리적 계층의 사람들에게 수안보온천을 알리는 광고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³⁰⁾, 「조선의 복장(朝鮮의 服裝)」³¹⁾, 「진흥충남충북산업지(振興의 忠南忠北産業誌)」³²⁾도 수안보온천을 광고하는데 기여하였다. 「동국여지지」는 17세기 중엽 수안보에 온정(溫井)과 온정원(溫井院)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1928년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조선의 복장」에는 일본인에 의해 온천이 개발되면서 여관, 공동욕조, 각종 오락기관, 요양소 등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일본인들은 이것을 사방에 홍보 선전하였다는 기록이 실려 있다. 그리고 「진흥충남충북산업지」에는 수안보온천이 동양 제일의 온천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이엽여관(二葉旅館)과 내천여관(內川旅館)이 업소광고란에 게재되었다.

넷째, <관광객의 계절성이 두드러진다>는 지표는 1920년대 수안보온천에서 관찰된다. 1927년도 수안보온천 이용객 수는 봄철에 12,033명, 여름철에 8,629명, 가을철에 8,907명, 겨울철에 9,088명³³⁾이었다. 이러한 통계결과에 의하면 수안보온천은 봄철에 많이 이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지역거주자의 생활이 관광과 관련되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지표는 수안보온천에서 주막영업이 시작되었던 17세기에 나타난다. 수안보온천 지역거주자들은 수안보온천 지역 대부분의 토양이 논과 밭으로 이용할 경우 생산력이 매우 낮은 자갈이 있는 미사질양토여서³⁴⁾ 생존을 위해서 숙박업소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여섯째, <관광객의 여행이 조직화된다는 지표는 일제식민지 강점기에 일본인 시찰단이 다녀간 점으로 보아 수안보온천에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일곱째, <지방정부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도로건설에 대한 압력을 받기 시작한다>는 지표는 1924년도에 수안보온천에서 관찰된다. 「진흥총남충북산업지(振興の忠南忠北産業誌)」³⁰⁾에 수안보온천은 온천에 관계된 제반설비가 미비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멀리서 오기가 어렵다고 기록한 점으로 보아서 수안보온천은 일제시대 초 편의시설과 도로건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버틀러의 몰입단계지표를 수안보온천에 적용한 결과 수안보온천에는 버틀러가 그의 모델에서 제시한 <방문객의 숫자가 증가하고 방문횟수가 규칙적임>, <방문객을 위한 일차적 편의시설의 제공>, <관광객과 지역민의 접촉은 빈번함>, <관광지에 대한 광고가 나감>, <관광객의 계절성이 두드러짐>, <관광객의 여행이 조직화됨>, <지방정부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도로건설에 대한 압력을 받기 시작함> 등의 지표가 모두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몰입단계지표의 시간적인 적용범위는 수안보온천에서 17세기부터 1928년까지 나타난다.

3) 개발단계의 지표와 수안보온천의 특성 비교

버틀러가 개발단계에서 설정한 지표(표 1)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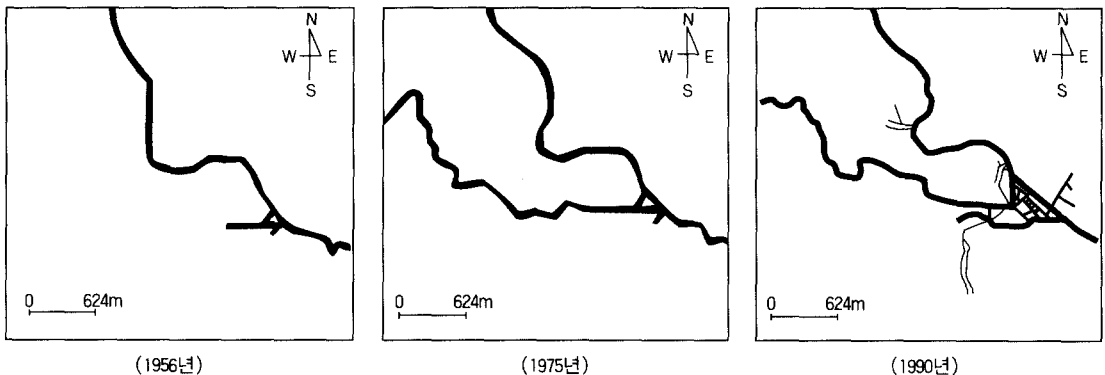
안보온천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고에 의해 최초의 시장지역이 형성된다>는 지표는 1920년대 수안보온천에서 관찰된다. 「진흥총남충북산업지(振興の忠南忠北産業誌)」³⁰⁾에 게재된 수안보온천 관광업소의 광고는 목욕을 자주하는 습관이 있는 일본인이 수안보온천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역의 물리적 환경변화가 현저하다>는 지표는 1908년부터 1945년까지 그리고 1975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동안에 수안보온천에 적용된다. 지도 1에서 세 개의 지도를 비교해 보면 1956년도 지도에는 충주시 상모면과 살미면 경계인 중산리 갈마고개에서 소조령까지 비포장상태의 3번국도가 수안보온천을 통과하였는데 반해 1975년도 지도에는 수안보온천에서 문경방향으로 도로가 개설되고 많은 가옥이 온천지구 내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 지도에는 온천지구 진입로, 호텔입구의 간선도로, 와이키키 진입로, 천주교와 한전사택 사이의 도로, 수희-문산간 도로, 고운-중산간 도로가 건설되어 교통망이 조밀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개발에 대한 통제와 지방정부의 관여도가 줄어든다>는 지표는 수안보온천 개발단계에 나타나지 않는다. 수안보는 온천공이 충주시 소유이기 때문에 온천개발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관여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넷째, <자연적이고 문화적인 관광자원이 개발되고 상업화된다>는 지표는 1929년부터 1945년까지



지도 1. 수안보온천의 도로교통체계변화

그리고 1964년부터 1983년까지의 기간 동안 수안보온천에 적용된다. 수안보온천에는 이 기간동안에 온천지구 내에 관광숙박업소가 형성되었으며, 1929년에 온천 1호공, 1964년에 온천 2호공, 1979년에 온천 3호공, 그리고 1980년에 온천 4호공이 개발되었다.

다섯째, <관광자원의 개발과 지역의 변화는 지역 사람 모두에게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니다>는 지표는 일본인에 의해 개발이 이루어진 1908년부터 1945년까지와 외지자본에 의해 개발이 진행된 1967년부터 1983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수안보온천에 나타난다. 일제시대 수안보온천에서 여관을 경영하던 일본인들은 우리 나라에서 헌병과 순사를 지내면서 민간인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충주시 상모면 화천리 사시동의 K씨⁷⁾에 의하면, 수안보온천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일본인은 교육을 받지 못한 하류계층이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아무 곳에서나 용변을 보아 당시 지역 주민들이 눈쌀을 찌푸렸다고 한다. 그리고 수안보온천은 1967년부터 외지인 특히 서울 사람에 의해 개발이 주도된 것이 특징이다.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거주자 L씨⁸⁾에 의하면, 당시 수안보지역 주민들은 “이러다 수안보를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며 외지인에 대해 무조건 거부감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다가 1984년 이후 수안보온천에 관광경기가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가 많아짐에 따라 외지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섯째, <관광질정시기에 관광객 수는 지역의

인구와 비슷하거나 초과한다>는 지표는 수안보온천에서 1928년부터 1945년까지 그리고 1968년부터 1983년까지의 두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안보온천에서 1931년부터 1967년까지 일부 관광객에 관한 통계자료는 그림 3에 나타난 바 처럼 현재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1931년부터 1945년까지는 1929년도 관광객 수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수안보온천 지역주민의 수도 1929년부터 1962년까지의 기간 동안 자료부족으로 그 통계치를 파악할 수 없으나 1928년 통계에 근거해 볼 때 1929년부터 1945년까지는 1221명 정도를 유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추정할 때 1928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동안에 수안보온천에는 관광객 수가 지역주민의 수를 훨씬 초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관광객 수에 관한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1968년 이후부터 1983년까지는 관광객 수가 지역주민의 숫자⁹⁾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일곱째, <외부지역에서 노동력을 충원받는다>는 지표는 1967년부터 1983년까지의 기간 동안 수안보온천에서 나타났다. 개발단계기간 수안보온천에서 호텔급 종업원은 충주 및 타 지역 출신이 많았다.

여덟째, <관광산업의 보조시설이 필요하다>는 지표는 1984년부터 1986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수안보온천에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에 수안보온천에는 세탁소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상록세탁실, 백조사, 정든세탁소 등이 신설되었다.

아홉째, <숙박부분에서 기존의 소규모 시설이 더욱 크고 화려한 최신시설로 대체된다>는 지표는 1908년부터 1945년까지 그리고 1967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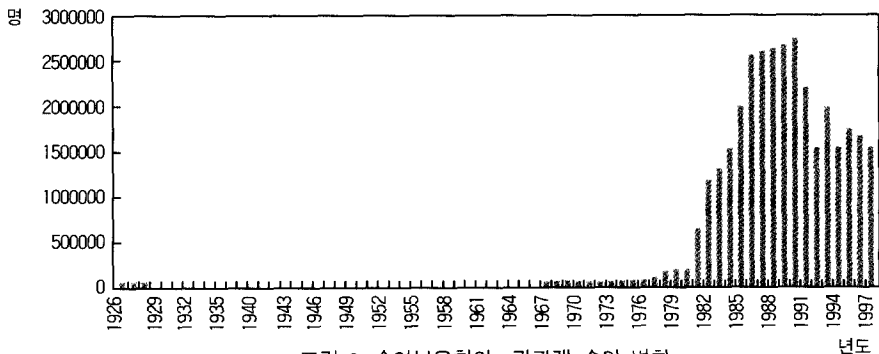


그림 3. 수안보온천의 관광객 수의 변화

자료: 수안보 관광안내소 제공

1986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수안보온천에서 나타난다. 수안보온천에서 전자는 주막이 일본의 근대식 숙박업소로 바뀌는 시기였고, 후자는 일본의 근대식 숙박업소가 한국의 현대 숙박업소로 대체되는 시기였다.

수안보온천의 개발단계는 버틀러모델의 개발단계지표를 수안보온천에 적용해 본 결과 <광고에 의해 관광시장지역이 형성된다>, <지역의 물리적 환경변화가 현저하다>, <개발에 대한 통제와 지방정부의 관여도가 줄어든다>, <자연적이고 문화적인 관광자원이 개발되고 상업화된다>, <관광자원의 개발과 지역의 변화는 지역사람 모두에게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니다>, <관광절정시기에 관광객 수는 지역의 인구와 비슷하거나 초과한다>, <외부 지역에서 노동력을 충원 받는다>, <숙박부분에서 기존의 지방적인 시설이 더욱 크고 화려한 최신 시설로 대체된다>는 지표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지표는 수안보온천에서 그 적용 년도가 1908년부터 1945년까지와 1964년부터 1990년까지의 두 시기에 걸쳐 나타난다.

4) 강화단계의 지표와 수안보온천의 특성 비교

버틀러가 강화단계에 제시한 6개 지표(표 1)를 수안보온천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버틀러는 관광지가 강화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지역의 주요 경제가 관광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수안보온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984년부터 1991년까지의 기간동안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3차 산업의 70%를 행정적으로 온천지구가 속한 온천리 1·2·3구가 차지할 정도로 수안보온천의 주요 경제는 관광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둘째, <총 관광객의 숫자가 증가하지만 방문객의 증가비율은 낮게 나타난다>는 지표는 그림 3에 제시된 바처럼 수안보온천에서 관찰되는데 관광객 수의 증가비율은 1983년부터 1989년까지의 기간동안에 둔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넓은 지역으로 광고를 하게 된다>는 지표는 1984년부터 1991

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수안보온천에서 나타난다. 수안보온천 관광협의회에서는 온천제 개최 및 일본 유가와라(湯河原) 온천과의 친선교류를 통하여 수안보온천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넷째, <관광산업의 프랜차이즈와 체인영업이 극소수이지만 나타난다>는 지표는 수안보온천에서 나타난다. 수안보온천의 경우 1984년도에 세종체인인 수안보파크호텔이 건설되었다.

다섯째, <관광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지역민들은 관광객의 행태와 관광객 편의시설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지표는 1984년부터 1991년까지의 기간동안에 수안보온천에서 관찰 할 수 있다. 정태홍(1991)에 의하면 수안보온천 지역주민들은 관광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방문화의 상품화, 청소년 교육환경의 악화, 미풍양속이 사라짐, 범죄 및 청소년 비행의 증가, 오물처리 문제 등을 심각히 인식하고 있었다.

여섯째, <레크레이션 업무지구(Recreation Business Districts: RBD)가 형성된다>는 지표는 1984년부터 1991년까지의 기간동안에 수안보온천에서 나타난다. 수안보온천에는 온천관광협의회, 수안보온천개발사업소, 은행 등 관광관련업무시설이 밀집된 레크레이션 업무지구가 3번 국도 변에 나타난다.

이상에서 버틀러모델의 강화단계지표를 수안보온천에 적용해 본 결과, 수안보온천에는 버틀러가 그의 모델에서 제시한 <지역의 주요 경제가 관광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다>, <총 관광객의 숫자는 증가하지만 방문객의 증가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넓은 지역으로 광고를 하게 된다>, <관광산업의 프랜차이즈와 체인영업이 극소수이지만 나타난다>, <관광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지역민들은 관광객의 행태와 관광객 편의시설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레크레이션 업무지구의 형성> 등의 지표가 1984년부터 1991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모두 나타나고 있다.

5) 정체단계의 지표와 수안보온천의 특성 비교

표 1에서 버틀러가 정체단계의 지표로 제시한 7개의 지표를 수안보온천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버틀러는 관광지의 정체단계에 <관광객 수가 최고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는데 수안보온천의 경우는 관광객 수가 1997년에 약 2,916,490명으로 최고에 달하였다(그림 3).

둘째, <관광객 수가 수용능력을 초과하기 때문에 사회·경제·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표는 1985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동안에 수안보온천에 적용된다. 수안보온천의 경우 쓰레기 배출량이 1985년도에 1,080톤에서 1990년도에 2,993톤, 1994년도에 6,943톤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온천지구를 관통하는 석문천의 수질오염도 심각하였다. 이밖에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한 미성년자들의 난동, 취객들의 싸움으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셋째, <관광지의 이미지는 좋지만 매력적인 편이 못된다>는 지표는 1990년 이래로 수안보온천에 나타나고 있다. 수안보온천은 인근 관광기간 연계 코스 미개발로 관광객들에게 단조로운 인상을 주었고, 시설의 노후화로 주변환경이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넷째, <지역의 고유한 관광자원이 인공적인 환경으로 변한다>는 지표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수안보온천에 나타난다. 수안보온천의 경우 1992년에 황산(642m) 일대가 스키장으로 바뀌었고, 1997년도에는 온천지구 석문천 호안에 주차장이 만들어졌다.

다섯째, <관광지 주변지역에 새로운 관광현상이 나타난다>는 지표는 1992년부터 수안보온천에 적용된다. 수안보온천 주변지역에는 1992년에 시설 개선 자금 300만원을 지원 받아 86개소의 민박업소가 형성되었다.

여섯째, <관광산업의 소유권이 자주 바뀐다>는 지표는 1990년 이래로 수안보온천에서 나타난다. 수안보온천의 숙박업소는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소유주 변동이 있는 업체가 전체의 66%를 차지한다. 특히 유흥업소는 다른 관광업소에 비해 평균 2~3명 정도로 소유주가 자주 바뀌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⁴⁰⁾

일곱째, <보수적인(psychocentric) 성향의 단체관광객이 많다>는 지표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수안보온천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기간동안 수안보온천은 여행사의 경기 활성화와 잦은 선거로 단체관광객이 급증하였으며 특히 관광업소의 가격인

하 경영전략으로 수학여행단 및 종교단체가 수안보온천을 많이 찾았다. 이들 관광객의 특성은 Plog(1973)가 보수적인 성향의 관광객을 규정하는 지표⁴¹⁾ 중에서 '일정이 짝 짜여진 패키지 여행을 선호한다'는 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향의 관광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상에서 버틀러모델의 정체단계지표를 수안보온천에 검증한 결과, 수안보온천에는 버틀러가 제시한 <관광객 수가 최고에 이르게 된다>, <수용능력을 초과하기 때문에 사회·경제·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관광지의 이미지는 좋지만 매력적인 편은 못된다>, <지역의 고유한 관광자원이 인공적인 환경으로 변한다>, <관광지 주변지역에 새로운 관광현상이 나타난다>, <관광산업의 소유권이 자주 바뀐다>, <조직화된 단체 관광객이 많다> 등의 7개 지표가 1990년부터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다.

6) 쇠퇴단계의 지표와 수안보온천의 특성 비교

버틀러가 관광지의 쇠퇴단계로 제시한 12개의 지표를 수안보온천에 적용해 본 결과 수안보온천에는 1998년 이래로 버틀러가 제시한 12개의 쇠퇴단계 지표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관광객 편의시설의 용도전환이 매우 쉽게 일어난다>, <호텔은 콘도미니엄, 요양소, 은퇴자의 거주지, 편리한 아파트로 쉽게 용도전환이 일어난다>, <노년층은 은퇴 후 영구거주지로 관광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관광지는 관광기능의 상실로 슬럼지구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표는 일부 그 현상이 수안보온천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은 공간적으로나 수적으로 침체국면을 보인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주말 및 당일 관광객이 많다>, <관광객 편의시설이 다른 시설물로 대체된다>, <보다 많은 편의시설이 소멸된다>는 지표는 설문조사 결과 수안보온천에서 확연히 나타났다.

1999년도에 관광객 17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안보온천은 그림 3에 나타난 바처럼 1998년 이래로 관광객 수가 크게 급감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관광객의 구성비율이 1984

년도에 56.7%(원학회, 1984)에서 1999년도에는 28%로 현저히 줄었다. 따라서 수안보온천에는 버틀러가 제시한 <시장은 공간적으로나 수적으로 침체국면을 보인다>는 지표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체류기간이 1박 2일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65%를 차지하는 점으로 보아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주말 및 당일 관광객이 많다>는 지표가 수안보온천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관광객 편의시설이 다른 시설물로 대체된다>와 <보다 많은 편의시설이 소멸된다>는 지표는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한 면담조사 결과에 의하면 1998년 이래로 수안보온천에서 나타난다. 수안보온천의 경우는 버틀러가 제시한 지표와 유사하게 흥익여인숙, 대명여인숙, 서울여인숙, 경북여인숙, 낙천여인숙 등이 가정집으로 바뀌었으며, 로얄호텔, 수안보관광호텔, 청수장, 로얄터미널 호텔 등은 1999년 현재 부도가 나서 영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버틀러모델의 각 단계별 지표를 수안보온천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비교한 결과, 버틀러모델의 탐색단계지표는 수안보온천에서 고려 태조가 다녀간 929년부터 1907년까지 나타나고, 몰입단계지표는 17세기부터 1928년까지의 기간동안에 나타난다. 세 번째, 개발단계지표는 두 시기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한 시기는 1908년부터 1945년까지이고 또 다른 시기는 1964년부터 1990년까지이다. 네 번째, 강화단계지표는 1984년부터 1991년까지 나타나고, 다섯 번째 정체단계지표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수안보온천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쇠퇴단계의 지표는 1998년 이후부터 12개의 지표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수안보온천은 이와 같은 버틀러모델에 근거했을 때 <관광산업의 소유권이 자주 바뀐다>는 일부 정체단계지표가 현재까지도 나타나고 있지만 1998년부터 관광지의 쇠퇴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3. 수안보온천의 활성화 방안

1998년 이래 쇠퇴국면에 접어든 수안보온천은 버틀러모델에 근거해 볼 때 쇠퇴단계의 지표 현상이 더욱 농후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재 수안보를 찾던 대다수 관광객은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은 안성 온천과 최신 시설을 갖춘 문강 온천을 찾기 시작했고, 관광객의 체류기간도 1박 2일로 짧아졌다. 또한 흥익여인숙, 대명여인숙, 서울여인숙, 경북여인숙, 낙천여인숙 등이 가정집으로 바뀌었고 일부 관광 숙박업소는 현재 부도가 나서 영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안보 온천은 지역주민의 생활경제기반이 관광산업에 있기 때문에 최근 관광 경기침체현상이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침체된 수안보온천의 관광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자본금을 들여 대단위 시설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필자는 낙후된 기존 관광업소를 그대로 방치한 채 대규모 시설물을 건축하려는 계획은 수안보온천의 현 단계를 진단해 볼 때 매우 위험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버틀러가 관광지의 쇠퇴단계에 제시한 <관광객 편의시설이 다른 시설물로 대체된다>, <보다 많은 편의시설이 소멸된다>, <관광객 편의시설의 용도전환이 매우 쉽게 일어난다>는 지표가 현재 수안보온천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1999년 현재 대부분의 유흥업소와 4개의 숙박업소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숙박업소의 11%가 이미 용도전환을 했고, 약 19%는 앞으로 다른 사업체로 용도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관광객 편의시설의 용도전환 현상은 수안보온천에서 앞으로 계속 나타나리라고 예상된다.

이처럼 편의시설의 소멸 및 용도전환 현상이 나타나는 수안보온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광 편의시설의 노후화와 자본의 부족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버틀러모델의 쇠퇴단계 및 회복단계의 지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수안보온천지구 내의 기존 관광 편의시설을 재활용하여 노년층의 영구거주지로 분양하는 것이다. 수안보온천은 수질이 단순천이기 때문에 노약자나 고령층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산간지대에 위치하여 자연환경이 양호하다. 그리고 수안보의 관광업소 경영자들은 시설을 개조할 수 있는 자본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물을 재



사진 2. 냉천(冷泉) 용출 지점(1999. 2. 28)

활용하는 것이 수안보온천을 활성화시키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기존시설물에서 객실, 식당, 목욕탕 등 기타 부대시설을 그대로 둔 채 층계부분만 엘리베이터나 노인들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바꾼 후 객실을 분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관광업소는 먼저 수안보온천을 선호하는 계층을 모색하여야 한다. 버틀러가 그의 모델에서 관광지가 쇠퇴단계에 이르면 <노년층의 경우 은퇴 후 영구거주지로 관광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였듯이, 1999년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179명 중 38%가 수안보온천에서 노후생활을 보내겠다고 하였다. 특히 응답자 중에서 수안보온천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노년층 관광객과 충주지역 출신이면서 현재 타 지역에 사는 관광객들은 은퇴 후 수안보온천을 영구거주지로 선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용도변경을 원하는 관광사업체 경영자들이 수안보온천을 자주 방문했던 노년층 관광객과 충주 출신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홍보전략을 세우고, 이들을 대상으로 영구임대 방식으로 객실을 분양한다면, 수안보온천의 침체된 관광경기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수안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버틀러가 관광지의 회복단계지표로 제시한 바 있는 미개발 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는 것이다.

현재 수안보온천에서 큰 자금을 들이지 않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온천제 개최 때만 이용되는 야외무대를 주말 상설 놀이마당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놀이마당의 주관은 수안보온천 관광협의회와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되 관광객과 중앙경찰학교의 악단, 충주시 연합고등학교의 합합댄스클럽, 충주시 소리의회의 음악연주단 등의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한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立岩巖(1928)⁴⁰⁾의 조사에서 밝혀진 수안보관광호텔 자리에 있는 냉천(冷泉)을 약수로 개발해서 관광자원화하는 것이다. 일제식민지 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수안보온천에 근대식 온천공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데이와에게 수안보온천의 지질 조사를 하게 하였다. 1928년도 다데이와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 현병철장소에서 1906년에 음료수 확보를 위해 굴착을 하였는데 현재 관광호텔(사진 2) 자리에서 냉천(冷泉)이 용출되었다고 한다. 수안보온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온천이 충주시 소유이고, 수안보 개발사업소의 온천개발규정에 의해 온천만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온천 개발법에 융통성을 두어 수안보관광호텔 자리의 냉천(冷泉)을 약수로 개발하여 시판하면 관광경기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안보온천 관광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인 틀로서 관광지 라이프사이클 모델을 검토하고 이 중 버틀러모델을 수안보온천에 적용하여 수안보온천 라이프사이클의 단계를 결정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수안보온천은 버틀러모델의 검증결과, 탐색단계기간이 버틀러가 제시한 탐색단계기간 보다 훨씬 길게 나타나고 편의시설에 대한 것과 관광의 영향에 관한 지표가 버틀러가 제시한 것과 다르게 나타났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관광지의 전개과정은 버틀러의 논리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버틀러모델에 따르면 수안보온천은 1998년 이래로 쇠퇴국면에 접어들었다. 쇠퇴단계에 접어든 수안보온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광시설의 노후와 낙후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자본 부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안보온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여 노년층의 영구거주지로 분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방치된 야외무대를 주말 상설놀이마당으로 활용하여 볼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수안보 관광호텔자리에 위치한 냉천을 약수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광지 활성화 방안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온천공이 국가소유인 수안보온천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할 행정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즉, 관할 행정기관이 쇠퇴단계에 이른 수안보온천의 현 단계를 직시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관광상품 개발에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준다면 수안보온천은 1980년대와 같이 발전의 틈니바귀가 다시 회전하기 시작할 것이다.

註

1) Christaller, W., 1963, Some considerations of tourism location in Europe: the peripheral regions-underdeveloped countries-recreation areas,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Papers*, 12, 103(Butler, R. W.,

1980, The Concept of a Tourist Area Cycle of Evolution: Implications for Management of Resources, *Canadian Geographer*, 24(1), 5-12에서 재인용).

- 2) Doxey, G. V., 1976, When enough's enough: the natives are restless in Old Niagara, *Heritage Canada*, 2, 26-27(김사영, 1993, "관광지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제주도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지리학*, 3, 91에서 재인용)
- 3) Pearce, D. G., 1989, *Tourist Development*, Longman Scientific and Technical, New York, 17.
- 4) Polli, R. and Cook, V., 1969, Validity of the Product Life Cycle, *Journal of Business*, 42(Haywood, K. M., 1986, Can the tourist area life cycle be made operational?, *Tourism Management*, 7(3), 154-167에서 재인용).
- 5) 폴리과 쿡 모델은 관광지의 단계결정을 관광객수의 변화비율 즉 그 변화비율이 -0.5%보다 작으면 쇠퇴단계, 변화율이 0.5%보다 크면 성장단계, 0~0.5% 한계 내에 있으면 강화단계, 그리고 -0.5~0% 한계 내에 있으면 정체단계로 구분되는 것이 특징이다.
- 6) 이영희, 1998, "관광지리학의 연구동향," 동국대학교원 콜로키움에서 발표: 1996년 통계에 의하면 관광지리학 논문 99편 중 47편이 관광객 및 관광시설현상을 기술하여 개별관광지역을 연구한 것이다.
- 7) 온정동동규절목은 수안보온천으로 인해 미풍양속을 해치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관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한 것이다. 동규절목 제정년도는 표지 상단에 壬辰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1772년(영조 48년)이고 또 다른 하나는 1832년(순조 32년)이다. 하지만 금송절목(禁松節目)의 제정년도가 1819년인 점으로 보아서 1832년에 제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8) 소나무 벌목을 금하는 금송절목(禁松節目)은 표지 상단에 嘉慶 20년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1819년(순조 19년) 것으로 추정된다.
- 9) 유동근, 1997, 통합마케팅, 미래원, 136-141.
- 10) 이 길은 삼국시대부터 경부선이 개통되기 전까지 서울에서 조령을 통과하여 부산에 이르는 대

- 로였다. 최영준은 이 길을 한양에서 영남방면으로 향하는 큰 길이란 의미에서 영남대로라고 하였으나 충주시 상모면 대안보 마을의 안병규씨는 이 길을 수안보온천지역에서는 삼남대로(三南大路)라고 불렀다고 한다.
- 11) 안부역은 공무연락이나 물건수송을 위해 둔 휴식 및 숙식 제공장소로서 조선시대 말까지 수안보온천 대안보 마을에 있었다. 현재 안부역의 흔적은 대안보 마을의 비석, 석재, 마방자리에 남아 있다.
 - 12) 온정원은 수안보온천 바로 옆에 있었다고 輿地圖書, 충청도읍지 연풍현, 동국여지승람, 황윤석의 시문집에 기록되어 있다.
 - 13) 고려 태조는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929년 8월에 수안보온천이 속해 있는 충주에 왔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고려 태조가 건국직후 충주지역에서 강력한 세력기반을 갖고 있는 충주유씨(忠州劉氏)와 정략적인 혼인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 14) 청풍향고지(劉商鐘, 1980, 淸風鄉校誌, 제천: 배문사, 82)의 “숙종이 수안보온천에 행차하시어 명소(命召)하시니 우암(尤菴)이 행궁에서 입대(入對)함에 숙종이 치안방책(治安方策)을 하문(下問)하시고 좌의정을 명하였으나 거절하였다”라는 기록으로 보아서 숙종이 수안보온천에 행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안보온천 인근에 왕이 머물렀던 곳이라 해서 유래된 “왕달약기”라는 지명이 이러한 숙종의 행차를 입증해 준다.
 - 15) 세조실록(세조실록 7년 辛巳 9월 己酉條: 己酉先是右議政權肇浴延豐溫井)에 의하면 세조 7년에 우의정 권람이 온천을 찾았다.
 - 16) 유학자 권상하(權尙夏)가 1689년 11월 수안보온천에서 목욕을 했다는 기록이 그의 시문집 한수재집(寒水齋集)에 전해지고 있다(寒水齋集은 권상하의 외증손 黃仁儉이 1761년에 간행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적혀 있다. 十一月往浴延豐溫泉)
 - 17) 통신사일행은 견문록 해행총재(海行總載)와 동사일기(東槎日記)에 의하면 수안보온천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안부역(安富驛)에서 숙박을 하고 말을 갈아탄 후에 고사리·조령관·조곡관·교구정·유곡역을 거쳐서 영남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 18) 김예식, 1996, 충주에서 가볼만 한 곳, 수서원, 162-163.
 - 19) 동사일기(東槎日記)에 의하면 수안보온천 인근의 지방관들은 통신사 일행이 지나갈 때 홍을 복돋아 주는 기생을 불러 대기시켰다고 한다. 기생들은 천민계급이면서도 사대부와 풍류를 나누었던 독특한 신분이었다. 다음 기록에 의하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말을 타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기생들은 외출을 할 경우에 말을 타는 것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었다.
 1. 白沙集(李恒福의 시문집), 西溪集(朴世堂의 시문집), 朝鮮總督府中樞院, 李朝各種文獻風俗關係資料撮要④, 韓國地理風俗誌叢書, 199, 경인문화사 영인본(1995년), 1649, 1775.
 2. 朝鮮總督府中樞院, 昭和 19年, 李朝各種文獻風俗關係資料撮要③, 韓國地理風俗誌叢書, 198, 경인문화사 영인본(1990년), 1176.
 - 20)
 1. 관광지가 아닌 곳을 선호한다.
 2. 다른 사람이 방문하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경험과 발견의 기쁨을 즐긴다.
 3. 새롭고 색다른 지역을 선호한다.
 4. 활동수준이 높다.
 5. 비행기로 여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6. 체인형태이거나 현대적이지 않은 편의시설을 선호한다.
 7. 외국문화를 접하고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8. 교통과 숙박편에는 신경을 쓰지만 자유롭고 유연하게 여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 21) 온천요법은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려·조선 시대에 질병을 치료하는 주요한 방법이었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州衍文長箋散稿)의 기록이 이를 입증한다. 이에 의하면 호서의 연풍현 수안보 땅에 온수가 있는데 수질이 좋아 병자들이 많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 22)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영남의 선비들은 세 가지 경로 즉, 조령, 추풍령, 죽령을 넘어 한양으로 갈 수 있었으나 과거 길만은 반드시 조령을 넘어서 수안보온천 한양으로 이어지는 영남대로를 고집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추풍령은 추풍낙엽(秋風落葉)과 같이 떨어진다는 속설이 있고 죽령은 썰매를 탄 것과 같이 과거에 미끄러진다는

- 징크스가 있어서 영남의 선비들은 꼭 조령을 넘어 수안보-한양으로 이어지는 과거 길에 올랐다고 한다.
- 23) 1818년은 금송절목(禁松節目)이 제정되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의미한다.
- 24) 이규경, 발행연대미상,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湖西延豐縣水安保地有溫水品佳病者集(호서의 연풍현 수안보 땅에 온수가 있는데 수질이 좋아 병자들이 많이 몰려든다)
- 25) 朝鮮總督府, 大正12年, 振興の忠南忠北産業誌, 한국지리풍속지총서, 47, 경인문화사 영인본, 47.
- 26) 善生永助(編), 昭和2年, 朝鮮の聚落, 한국지리풍속지총서, 139, 경인문화사 영인본, 393-397.
- 27) 溫井朝聚暮散之類亂法
- 28) 서울대학교 도서관, 1991, 通信使謄錄, 규장각자료총서, 155-156.
- 29)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4월 丙辰條.
- 30) 東國輿地志, 忠淸道 忠州牧 延豐縣條 (溫井在縣北三十里安富驛西, 溫井院在溫井傍)
- 31) 朝鮮總督府, 昭和 2年(1927), 朝鮮の服裝, 韓國地理風俗誌叢書, 224, 경인문화사, 영인본, 160-164.
- 32) 朝鮮總督府, 大正12年, 전계서, 47.
- 33) 善生永助(編), 昭和2年, 전계서, 396.
- 34) 농업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1990-1995년, 정밀토양해설도(충주시, 증원군, 문경시)
- 35) 朝鮮總督府, 大正12年, 전계서, 469.
- 36) 朝鮮總督府, 大正12年, 전계서, 47.
- 37) 1999년 5월 면담내용, 남자, 70대 후반, 농업.
- 38) 1999년 5월 면담내용, 남자, 50대 후반, 호텔경영.
- 39) 1968년: 11,743명, 1969년: 11,454명, 1970년: 10,532명, 1971년: 10,414명, 1972년: 10,466명, 1973년: 10,484명, 1974년: 10,334명, 1975년: 9,564명, 1976년: 9,513명, 1977년: 9,319명, 1978년: - 명, 1979년: 7,942명, 1980년: 7,707명, 1981년: 7,841명, 1982년: 7,794명, 1983년: 7,532명.
- 40) 1999년 2월 수안보온천 유흥업협회 H씨와의 면담내용.
- 41) 1. 익숙한 것을 선호한다.
2. 오락장소를 선호한다.
3. 활동수준이 낮다.
4. 운전하여 갈 수 있는 곳을 선호한다.
5. 호텔, 가족식당, 상점 등 관광편의시설이 조성

된 곳을 선호한다.

6. 외국인이 없고 가족형 오락물이 있는 친근한 분위기를 선호한다.
7. 일정이 짝 짜여진 패키지 여행을 선호한다.
- 42) 立岩巖, 1928年, 忠淸北道槐山郡水安堡溫泉調查報告書, 朝鮮總督府地質調查書.

文 獻

- 김병문, 1978, "수안보온천관광지의 세력권에 대한 지역적 연구," 관광학, 2, 19-37.
- 원학회, 1984, "수안보 온천관광취락의 형성과 구성," 지리학연구, 9, 419-431.
- 정태홍, 1991, "관광지 개발이 지역주민에 미친 영향- 수안보온천을 사례로," 지역개발연구, 1, 충청전문대학 지역개발연구소, 109-131.
- 조일환, 1986, "수안보 온천사 연구," 신성인쇄.
- Butler, R. W., 1980, The Concept of a Tourist Area Cycle of Evaluation: Implication for Management of Resources, *Canadian Geographer*, 24(1), 5-12.
- Chris, C. and Stephen, J., 1989, Destination Life Cycle: The Isle of Man Case Study, *Annals of Tourism Research*, 16(3), 377-398.
- Chris, C., 1994, The Contribution of Life Cycle Analysis and Strategic Planning to Sustainable Tourism, in Salab, W. and John, J. P.(eds.), *Tourism, Development and Growth - the challenge of sustainability*,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Crompton, J. L. and Hensarling, D. M., 1987, Some Suggested Implication of the Product Life Cycle for Public Recreation and Park Agency Managers, *Leisure Science*, 1(3), 295-296.
- Foster, D. M. and Murphy, P., 1991, Resort Cycle Revisited- the retirement connec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18, 553-567.
- Gets, D., 1992, Tourism Planning and Destination Life Cyc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 752-770.

- Haywood, K. M., 1986, Can the tourist area life cycle be made operational?, *Tourism Management*, 7(3), 154-167.
- Hovinen, G. R., 1981, A Tourist Cycle in Lancaster County, Pennsylvania, *Canadian Geographer*, 15(3), 283-286.
- Pearce, D. G., 1989, *Tourist Development*, Longman Scientific & Technical, New York.
- Plog, S. C., 1974, Why Destination Areas Rise and Fall in Popularity, *The Cornell Hotel and Restaurant Administration Quarterly*, 4, 13-16, 55-58(Pearce, D. G., 1985, *Tourism Today: a geographical analysis*, Longman Scientific & Technical, New York, 15에서 재인용)
- Seymour, L., 1980, Tourism Development in Newfoundland: The Past Revisited, *Canadian Geographer*, 14(1), 33-39.
- Strapp, J. D., 1988, The Resort Cycle and Second Hom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5, 504-516.